

부안군, 석산 불법 토석채취 의혹

벽면 계단 가파르고 비탈면 경사 심해... 행정당국, 강 건너 불보듯

부안군 'A' 석산 개발의 불법 토석채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석산개발과정에서 소단을 조성하지 않아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석산을 개발할 경우 복구계획을 행정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설계도면대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높이 15m, 폭 5m 간격으로 소단을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과 수직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해,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A' 석산의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하도록 돼 있는 벽면이 계단을 조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랐고 복구가 어려운 정도로 비탈면 경사가 심했다.

문제는 상황이 심각한데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점.

당초 허가신청서 사업계획과 달리 채취 등을 하지 않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해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석산은 절개지 중간에 소단이 조성되지 않고 비탈면 상태로 유지된 것이 10년이 넘었고 허가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승인, 현재도 발파, 채굴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불법채취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곧



부안군 'A' 석산.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사중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완산구,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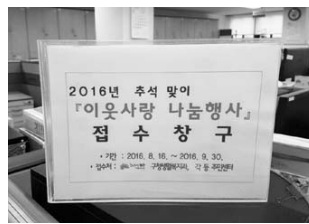
다음 달 30일까지 전개

완산구(구청장 이용호)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웃돕기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소외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 다음달 30일까지 45일 동안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나눔행사 창구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와 구청사 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나눔 행사 창구를 통해 발굴된 후원자들과 연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로 방문, 해바라기 봉사단 명절음식 나누기 행사 등을 다채롭게 진행할 계획이다.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인기 과장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을 발굴, 긴급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구청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해 저소득 이웃들이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 각층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교도소 출소 3일만에 강도행각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일 만에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1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고객의 통장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강도 등)로 강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25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A(66)씨를 밀치고 600만원이 들어있는 A씨의 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이날 빼앗은 A씨의 통장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이날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A씨 뒤에서 지켜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통장을 빼앗아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교도소 출소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야! 일어나"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1일 오후 광장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가 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성 속옷 훔치고 집주인 폭행 20대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가정집에서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이모(20)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북 완주군 A(76·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16점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A씨의 집을 방문해 여성 속옷 24점과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전주시, 불필요한 직선도로 안 만든다

예산 절감·환경보호 기대

전주시가 자연을 파괴하고 건물을 허물면서까지 불필요한 직선도로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는 도로공사에 필요한 예산 감축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주시는 향후 개설되는 도로 설계 시 불필요한 직선도로 대신 완만한 곡선도로 설계하는 등 인간과 자연, 자동차가 공존하는 도로체계를 점차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로 설계 시 운전자의 주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과속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는 직선도로보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완만한 곡선도로 설계해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본청과 양 구청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공사 시 직원들이 도로를 무조건 직선도로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완만한 곡선도로로 도로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직선도로를 내기 위해 건물이나 토지를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하거나 자연을 파괴하면서 터널을 뚫는 등의 행위를 가급적 자제해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시킬 계획이다.

실제 전주시가 추진한 서곡~추천대 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완만한 곡선도로의 선형변경을 통해 직선도로 개설시보다 예산 50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직선도로 대신 전주천 등 하천과 산, 나무 등 도시의 자연형태와 지역특성, 주민 여건 등을 고려한 완만한 곡선도로를 만들면 자연과 생태도 보호할 수다는 장점도 있다.

/김영재 기자

완주 37.6도... 올해 전북 최고기온 경신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완주의 낮 기온이 37.6도가 치솟으며, 전북지역 올해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전주시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낮 최고기온은 완주 37.6도를 비롯해 정읍 36.4도, 남원 35.9도, 고창 35.7도, 전주 34.9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완주에서 기록한 37.6도는 지난 4일 익산 여산의 37.1도를 뛰어넘는 올해 전북지역 최고기온이다.

기상지청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북 전주와 익산, 정읍, 김제, 남

원, 완주, 부안, 임실, 무주, 고창, 순창 등 11개 지역에 폭염경보를, 군산과 진안, 장수 등 3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이런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으로 일부 지역은 불안정한 대기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노약자와 임산부,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전주 자봉센터, 관광객에 얼음체험 캠페인 펼쳐

부채 나눠주기 등도 진행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옥마을에서 '사람의 도시 만드는 날' 자원봉사 활동 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한옥마을은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무더위에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시원한 얼음체험과 더불어 물티슈, 부채 나눠주기 등의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 봉사자와 함께 참여해 한옥마을 전통시장 앞에서 무더위를 시켜줄 시원한 음료수와 전주시 홍보용 물티슈,

부채를 나눠 주는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전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주시민이 직접 외부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필수품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나눠주면서 '자원봉사로 더 행복한 전주'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활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박정석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부센터장은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더위에도 전주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선도 도시 전주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